

금남로에서

용돈이 230억 이라는데...



신항락 이사·논설주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무렵인 1987년 말 그의 딸에게 ‘용돈 조’로 23억 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는 딸에게 “용돈으로 주는 것이니 알아서 쓰라”며 1억 원짜리 무기명 채권 23장을 주더라고 배석했던 한 측근이 전했다. 23억 원이면 당시 서울 강남의 43평형 아파트 1개 값이 1억 원이었으니 23채를 살 수 있는 거금에 해당된다. 26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가격으로 단순 계산해도 1채당 값이 10억 원 이상 되는 만큼 그 가치가 230억~250억 원에 달한다. 그 기간 금리와 물가, 부동산 값을 감안할 경우 10배의 상승은 자연스런 현상이자 26년 전 23억 원이 지금의 230억 원과 가치가 같다는 얘기다. 군사독재시절 기업인들에게 강제로 수천억 원을 빼앗아 주무른 전두환으로서 당시 23억 원 정도는 오히려 불과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세아들에겐 얼마나 주었을까. 23억 원이 용돈일 진대, 수백 배의 돈을 줬다는

29만 원 뿐이라는 전두환

민중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전두환이 불법으로 조성해 그 일가와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을 다 합하면 무려 9334억 원에 이한다고 밝혔다. 수천억 원대라는 것은 그 일가의 재산 목록만으로도 추산이 가능하다. 그런 그가 2003년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육군사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낸 1000만 원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으며, 특급호텔에서 값비싼 결혼식을 열고, 잦은 골프에, 해외여행은 무슨 돈인가. 전두환씨 퇴임 당시 그 일가가 이렇다할 수입원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었던 건 대물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전재국이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설립했던 것도 당시 동생 전재용이

조세 포탈 수사를 받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비자금 은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18 광주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16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30억 원에 달하는 국인 혈세로 경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외국 여행시 외교관 대우까지 해주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역사적 범죄자에게 이러한 특혜가 가당한 일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전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몰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추징금 미납 시 노역장에 보내면서 천안공노할 범법자를 두둔한다면 사회정의에 도어긋나는 일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추징해야

지금 국회에는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 환수를 위한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추징법을 현 상황에 적용한다면 전씨 일가에게 당장이라도 미납 추징금 징수가 가능하며, 몰수나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나 감치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다수당이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에 있어 6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족들의 재산 추징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배치되고, 소급 적용할

경우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줘 위한 소지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물론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전씨의 경우 현재 추징이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연좌제 역시 개정안은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이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자는 것이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두환 추징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로 봐야 한다. 검찰이 전씨의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다지만 흑역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오는 10월11일 시효를 넘긴다면 모든 게 물거품 된다. 그런 면에서 전씨 일가의 비자금 논란에 중지를 찍는 일도 새누리당 몫이 돼야 한다. 이를 외면하려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자 그들이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5공(共) 후신으로서 그 뿌리와 단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추징금 문제에 대해 새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역사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자가 구린 돈으로 자자손손 평평거리며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5·18 피해자는 물론 서민과 기층민들께겐 그야말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누대에 걸쳐 구경도 못할 230억 원이 용돈이라는 데야...

은펜칼럼

전주 지역 가치를 높이는 한옥마을



박형순 전남대 명예교수·국제과학문화협회 이사

필자는 요즘엔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부인 풍남동 옛집에 살고 있다. 시간 날 때마다 마을을 둘러보며 이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옛 문화를 즐긴다. 전곡에서 물러드는 많은 관광객들을 접하며 전주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옥(韓屋)’에 새삼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옥은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 양식 건물, 즉 양옥에 상대하여 일컫는 말이다. 세계화 시대를 표방하다 보니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한옥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

시는 “한옥 부흥시대를 열겠다.”는 시책을 펼쳤으나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유독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전주한옥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상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품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교통, 풍남동 일대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지 군락이다. 한국인의 자존심이 걸린 일종의 민족의식의 산물로서 백 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은 면적 29만6330㎡에 건물이 700여 동이며 신축 건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옥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옥이 거의 80%를 차지할 전망이다. 한옥의 건축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다. 둘째, 전주 한옥들은 도시 환경과 구조에 맞게 발전되어온 ‘도시형 한옥’으로써 1910년대부터 산업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달과정의 역사적 산물이다. 셋째, 도시형 한옥들과 이조왕조 문화에

뿌리를 둔 경기전터의 여진 박물관, 하마비를 비롯하여 향교, 견훤성터, 남고산성, 풍남문 등 문화유적지가 많고 이러한 두 시대의 어우러짐이 전주한옥마을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 넷째, 문화센터,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 체험관, 술 박물관, 한지로 만든 옷을 파는 가게, 한방문화센터 등 각종 전통문화 시설이 있다. 그리고 합죽선, 태극선을 비롯한 공예방들과 찻집, 풍나물국밥, 비빔밥, 한정식 등 우리 입맛을 돋우는 전통 음식점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한옥마을에서 먹는 전통음식들은 훨씬 더 맛있고 느껴지며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외에도 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성당, 동학혁명기념관도 중요한 문화유적의 면모를 지니고 순례객을 맞는다.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600년 이상의 은행나무 뿌리에서 몇 해 전 배태된 새 줄기는 DNA 검사를 통하여 보호수의 친자임을 확인받았다. 이 특별한 고목의 번식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마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다양한 가격의 민박집이 많고 전주시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한 해 동안의 숙박인원만 20만1000명을 상회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전주한옥마을이 상황을 이룬다 할 지라도 현재는 내국인 위주의 관광에 국한되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가진 군 단위까지 포함하여 면적을 대폭 확대 조성하였으면 한다. 전주의 일부밖에 불과한 한옥마을이 아니라 전주인근일대가 ‘가장 한국적인 한옥 도시’로 바뀌는 비전을 품어보면 어떨까? 이에 비하여 광주는 무엇으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놓고 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모두가 창의적 의견을 도출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사상지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社說

막대한 지원에도 대중교통 불친절하다니

광주지역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는 매년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이는 적자 보전의 의미도 크지만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운행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특히 광주시가 ‘국제도시’를 목표로 잇따라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절한 서비스는 그 전제가 돼야 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행위는 여전히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불편을 물론 피해까지 주고 있다. 본보가 최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급정거에 난폭운전도 모자라 함의라는 시민에게 욕설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시내버스는 지난 2007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매년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운전자의 의식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택시도 올해 초 기본요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약속했던 서비스 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친절교육과 업체 평

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하고 있으나 효과는 요원한 실정이다. 택시 내 카드단말기 장착률도 전체 40.4%에 그쳐 외국인과의 다름도 잦다고 한다.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의 장차율이 100%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주시하철 역시 승객 안전 확보와 역내 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스크린도어(안전문) 설치율이 19개 역 중 11개로, 57.9%에 불과하다. 광주시가 버스와 택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운전기사의 불친절, 난폭운전에 대한 광주시의 조치는 특별교육과 경고가 고작이다. 광주시는 교통업체와 운전기사의 교통의식 변화를 적극 유도하되 여의치 않다면 ‘3진 아웃제’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별교육 등 ‘적당’은 이제 안 된다. 그 많은 혈세를 내고도 불친절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탈주범 농친 광주경찰 ‘치안’ 자격 있다

탈주범 이대우가 지난 주말 부산에서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신출구불한 도괴행각을 벌인 지 26일 만이다. 비록 이대우가 잡히기는 했지만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후 광주에 잠입해 사라지기까지 경찰이 보인 어설피고 안일한 대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불찰한 이대우의 진술에 따르면 초동수사부터 엉터리였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광주에서의 행적은 민생 치안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대우는 검거 직후 경찰에서 “광주에서 대적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고, 수갑은 광주 양동시장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에서 절도를 하며 배회한 이대우가 고속버스를 탔고, 양동시장에서 절단기를 샀는데도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터미널 등에 설치된 48개의 CC-TV 화면을 분석하고, 매일 1000여 명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경찰의 검문검색이 요시행위에

그쳤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수갑을 차고 도주한 이대우가 수갑 제거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절단기를 사기 위해 시장 한복판을 버젓이 돌아다니던 탈주범을 놓쳤다는 것은 안일한 수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남부경찰은 이대우가 관할 구역에서 절도 행각을 했음에도 며칠 후에야 탈주범인 것을 알고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졸음 한 발 느린 행보를 이어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뒷북수사’로 일관한 것이다. 경찰의 이러한 안이함을 비롯하거나 하듯 탈주범은 그동안 전국을 휘젓고 다녔다. 경찰의 수사가 이 정도라면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광주경찰은 초동수사 실패에서부터 검문검색의 문제점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과 각성을 통해 민생치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부실 수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오늘날 전례 내려오는 중국의 병법서에는 첩자, 이른바 스파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대목이 적지 않다. 유명한 ‘손자병법’에는 첩자를 활용하는 5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적국의 첩자를 포섭해 활용하는 반간(反間), 적국의 백성을 활용하는 인간(因間), 적의 마음을 매수하는 내간(內間), 죽음을 사하고 적국에서 활동하는 사간(死間), 그리고 적국에서 정보를 갖고 살아 돌아오는 생간(生間)이 그것이다. 또 다른 병법서인 병경백자(兵經百字)에도 몇 가지의 첩자 활용방안이 담겨있다. 거짓 작전문서를 활용하는 문간(門間), 적진의 친구를 이용하는 우간(友間), 은혜를 베풀어 인심을 공략하는 은간(恩間), 뇌물로 적의 장수를 공략하는 뇌간(賂間), 유언비어나 노래 등을 퍼뜨리는 요간(謠間), 그리고 벼슬이나 지위를 미끼로 삼는 작간(爵間) 등이다. 병법서들은 특히, 첩자를 활용하는 이 모든 전략의 일차적 목표는 바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하고 있다. 중국의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발췌·인용한 ‘백전기법’에서는 “무릇 적을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이용하여 적의 숫자와 허실 및 동정을 엿본다. 그런 다음 군사를 일으키면 필승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명나라 하수법이 쓴 병법서 투필부담(投筆膚談)에서는 “적의 정세를 알고 싶으면 천금이라도 아껴서는 안 된다. 천금을 아까다 첩자를 잃으면 실패한다. 천금을 내어서 적의 정세를 얻으면 이긴다.”고 강조하고 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광범한 진리는 전쟁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각국의 비난을 감수하며 천문학적인 인심을 공략하는 은간(恩間), 뇌물로 적의 장수를 공략하는 뇌간(賂間), 유언비어나 노래 등을 퍼뜨리는 요간(謠間), 그리고 벼슬이나 지위를 미끼로 삼는 작간(爵間) 등이다. 병법서들은 특히, 첩자를 활용하는 이 모든 전략의 일차적 목표는 바로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

프리즘



기고

아날로그 종이 책의 요술



김삼철 광주시립도서관장

지난 5월25일 우리 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온종일 책읽기’ 행사를 개최했다. 시민 500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1팀당 20명씩 총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거나 추천받아 하루 동안 독서 리더와 함께 완독하는 행사였다. 이날 참여한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하루 완독한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보람찬 하루였다고 하면서 이런 독서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독서팀 중 ‘발레 감상팀’에 참여한 시민 한 분은 ‘독서 리더가 책과 함께 발레 영화 한편을 보여주면서 발레에 관한 용어, 동작 등을 설명해 주고 발레 배우에 얽힌 사연까지 이야기해 주어 발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어 발레 전문가가 된 것 같다’고 흐뭇해 했다. 온라인·디지털 시대에도 종이책만이 지

니고 있는 매력은 영원하다. 책 읽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이 풍부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게 한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가 수재가 되며, 어린이, 청소년들은 미래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우리 동네의 도서관이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이를 웅변해 준다. 우리 도서관에서 22년간 독서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0대 어머니들이 저에게 해 주었던 말이 충격적이었다. 독서클럽 회원들의 자녀 90%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치대를 다니는데, 그 이유는 책을 읽히기 위해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왔고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습관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책을 읽혔을까 하는 저의 질문에 한 권 읽으면 용돈 올려주고 또 한 권 읽으면 여차피 사줘야 할 옷, 운동화 등을 사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법 등으로 독서를 습관화했다고 하였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책읽기, 독서야말로 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처럼 지방에 사는 가난한 민초들이 재력으로 선수를출을 잘 시

켜 학교 공부 잘하는 수도권 학부모와 청소년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다. 처음 콩에 물을 부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꾸준히 물을 붓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뿌리가 자라 시루를 빼곡히 채운 콩나물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꾸준한 독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사고를 키워주고 학생들의 학습 수용능력은 물론 정의(情意)적인 인성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의 자식 시골 촌놈들이 서울 수도권 청소년을 이겨내고,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독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식들은 일류 대학에 합격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각종 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교수·과학자로 성장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鎭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br>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br>(F A X 222-8005) | 문화 사업국 2200-541<br>(F A 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마케팅국 2200-621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12  |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 디 지 인 실 2200-536                   | 서울 지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16  | 조 사 부 2200-571                   | 프로젝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